

농식품 현장 누빈 청년들 일자리 결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7일 대구·경북지역 농식품 미래기획단 'YAFF' 회원 40여명과 하이트진로 흥천공장을 탐방했다.

〈aT 제공〉

aT 진로 탐색 프로그램

호텔 외식인턴들 채용 성과

미국·태국 해외 실무경험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정부 3.0가치를 기반으로 추진 중인 농식품분야의 다양한 청년일자리 창출 활동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aT는 지난 12일 서울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외식조리분야 호텔인턴십 프로그램 수료식을 했다. 이 두 기관은 청년일

자리 창출 및 농식품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달 국내 최고급 호텔 중 한 곳인 인터콘티넨탈 호텔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국내 호텔관련학과 학생 20명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에 처음 시도된 호텔분야 인턴십 프로그램의 수료자 가운데 우수한 성적을 거둔 3명이 실제 그들이 꿈꿔왔던 호텔리어에 정식 채용되는 결과를 얻음으로써 농식품부와 aT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이번 프로그램은 국내외 호텔분야 농식품 인재양성의 본격적인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이를 통해 해당 호텔

뿐만 아니라 타 유명호텔들도 캠페인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돼 해당분야에 진출을 꿈꾸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취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식 채용의 행운을 거머쥔 황시연(중부대학교 호텔경영학과)씨는 이날 인터뷰를 통해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해 호텔식품분야의 미래와 잠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인턴기간 동안 열심히 쌓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취업한 호텔에

서 인정받는 인재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농식품부와 aT의 호텔분야 농식품 인재육성 노력은 지난 5월 태국의 글로벌 호텔체인인 두짓타니 그룹과의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일자리협약 체결로부터 시작돼 그 결과 7월부터 미국과 태국의 해당그룹 호텔체인으로 4명의 학생이 파견 중이다. 또 오는 2017년에는 보다 확대된 국가로 10여명이 파견될 전망이다.

aT 김경옥 식품산업처장은 “국내 최고급 호텔체인인 인터콘티넨탈과의 협업을 통해 호텔분야로 진출을 원하는 청년의 역량강화와 직업탐색의 기회를 넓혔다.”라며, “향후 국내외 호텔을 비롯해 식품관련 기업 및 기관과의 일자리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 농식품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농관원, 친환경농업인 의무 자조금 도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김경빈)은 17일 “친환경농업을 늘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 자조금사업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추진했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은 친환경농업인 스스로 주체가 되어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친환경농산물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1000㎡ 이상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과 친환경농산물 취급조합으로 한정하며,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증면적 330㎡ 이상을 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인은 유기·무농약 인증을

신청하는 인증기관(농관원 및 민간인증기관 65개소)에 신청면적 기준으로 자조금을 납부하게 된다.

또 납부금액은 농업인의 경우 10a당 유기 4000원(무농약 3000원), 유기 밭 5000원(무농약 4000원)을 각출할 계획이다.

조합은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매출액)에 따라 연 100만~200만원으로 설정,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는 20억원 정도의 자조금을 조성하고, 향후 연 40억~50억원 규모의 자조금이 조성될 예정이다.

전남농관원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사업이 친환경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기반을 마련, 친환경 농식품산업을 발전시킬 큰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농촌여행, 더 안전하고 즐겁게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시설 관리 강화·UCC 공모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김경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관광객이 집중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시민들이 농촌을 많이 찾을 수 있게 농촌여행 시설에 대한 안전·위생관리를 강화한다.

또 농촌 여행지 정보 및 이용혜택을 제공하고, 농촌에서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름휴가철 농촌을 방문한 도시민에게 즐길 거리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농촌여행 스탬프 앱’(App) ‘여름휴가 두근두근 농촌여행 사진공모전’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보낸 여름휴가 UCC 공모전’을 진행한다.

또한 농촌여행을 한 뒤 스탬프 획득 시 5000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준다.

이번 농촌여행에서는 여름휴가를 보다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약에서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한 ‘농촌여행 온라인 예약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체험마을에서의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은 농촌관광의 편의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관광 종합포털 ‘우리나라 좋은마을, 웰촌’(www.welchon.com), SNS 채널 ‘우리나라좋은마을’(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북, 네이버블로그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농관원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힐링여행을 도시민에게 선물하고, 나아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농식품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폭염에…전남 가축 65만마리 폐사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최근 한 달 동안 닭, 오리, 메추리, 돼지 등 가축 350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폐사 가축 마릿수는 지난해보다 38% 증가한 것이며, 최근 5년 동안 피해규모가 가장 큰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6일까지 한 달 동안 폭염으로 인한 가축 사육농가 피해를 조사한 결과, 349만4575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북(124만9000여마리)이 가장 컸고 전남(65만1000여마리), 충남(58만여마리), 경북(36만1000여마리) 등이 뒤를 이었다.

가축 폐사에 따른 재산피해는 추정보합금 기준으로 110억2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가축 종류별로는 닭이 334만5373마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오리(11만3371마리), 메추리(3만마리), 돼지(5831

마리)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53만2000여마리, 2014년에는 99만4000여마리, 2013년 198만5000여마리, 2012년 185만7000여마리가 폐사했다.

농식품부는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에 대한 홍보, 현장 기술지도, 보합금 지원 등 대응 활동 강화에 나섰다.

자막방송, SMS 문자 발송, 홍보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축사 환기, 축사지붕 물뿌림, 차광막 설치, 충분한 음용수 공급 등 폭염시 행동 요령을 전파하고, 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폭염이 지난해보다 일찍 시작됐고 폭염 기간도 길어 가축폐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만큼 축산농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농협전남본부와 대만 수입업체 관계자들이 구례농협유통센터 현장실사를 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구례 배 수출 대비 현장실사

대만 업체와 유통센터 방문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16일~17일 이틀간 고품질 배 대만 신규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구례농협(조합장 조재원)에서 수출업체(부림교역) 및 대만바이어(Hana Food)와 함께 신규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구례농협산지유통센터(APC)의 작업 환경을 점검하는 현장실사를 했다.

이번 현장실사에서는 대만 국민이 선호하는 배 선별 및 포장방법에 대해 바이어로부터 직접 설명 듣고, 수출 작업시 개선 및 보완해야 할 점 등에 대한 상호 협의를 했다. 이 기간 동안, 대만 바이어는 신규 수출농협의 발굴, 우수한 수출작업환경, 농협의 수출노력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

올해 배 대만신규수출을 준비하고 있

는 구례농협은 지난해 구례군 최초로 단감을 말레이시아로 수출(20t)하였으며, 올해는 신규 수출품목으로 배를 선정하고 수출준비를 시작하여 지난 5월 수출농가(9농가)를 대상으로 대만 배 수출선과장 신규 등록을 완료했다. 이후, 올해 배 수출 200톤을 목표로 수출농가 대상 고품질 기술교육실시(2회) 및 수출바이어 초청사업도 했다.

강남경 본부장은 “수출업체와 수입바이어가 함께하는 농협 APC 현장실사는 초기 수출 위업을 줄이고 수출작업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신규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농협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다양한 수출품목의 발굴로 이어질 수 있는 수출농협 현장실사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건)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다양한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금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참숯구이 민물장어와 숙지환 삼계탕을 개시합니다.
 솔향기정식,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숙지환삼계탕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상껏 모시겠습니다.

참숯가마 찜질방 / 족욕탕 / 참숯구이 민물장어 & 돼지갈비 전문점 / 노래방 & 동전노래방